

스마트기기에서 만나는 템플스테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불교계 최초, 템플스테이 앱북 출시

불교계 최초로 템플스테이 앱북(Appbook)이 개발됐다. 앱북은 북(book)의 형태를 갖추고 스마트기기에서 구동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현, 이하 사업단)은 11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태블릿 PC 사용자들이 점차 늘어 기존 인쇄홍보물의 한계성을 느끼게 됐다”며 “음악,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1700년 한국불교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앱북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앱북은 아이패드와 갤럭시탭 용으로 각각 영문·한글 버전이 출시돼, 애플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앱북 제작을 담당한 여길테 디자인 및 대표는 “템플스테이는 한국의 전통문화 불교를 이해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아이콘”이라며 “불교의 정신과 한국화를 보

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여러 목차를 한 번에 살필 수 있고, 일반책보다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앱북의 형태로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템플스테이 앱북의 가장 큰 특징은 산사의 멋을 느끼고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을 프로그램별로 생생한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자연의 소리, 법고와 범종 같은 사찰 사물들 소리를 상세한 설명과 함께 오디오로 들을 수 있다. 앱북은 내년도 외국인 상사사찰 선정사업에서 재지정되는 사찰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제작된다.

이미 2월에 모바일 영문웹사이트 오픈을 비롯해 아이폰 템플스테이 어플을 출시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앞으로 지속적인 모바일 콘텐츠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지현 스님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불교계 최초로 출시한 템플스테이 앱북의 모습

“정부의 템플스테이 예산 축소로 인해 템플스테이 사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모바일 콘텐츠사업 활성화를 통해

한국불교와 한국전통을 알리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대불련, 첫 장학기금 5억원 전달 받아

대불련총동문회(회장 윤제철)가故 김익권 장군(1922~2006)의 미망인 한정희 여사로부터 장학기금 5억원을 전달 받았다.

대불련총동문회는 11월 19일 서울 방배동 ‘열린법당’에서 장학기금 기증식과 고별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대불련총동문회가 설립한 (사)대불을 통해 젊은 불자 육성기금으로 활용된다. 기금의 명칭은故 김익권 장군의 호를 붙여 시곡(栉谷) 장학기금으로 불리며, 기증자의 뜻에 따라 신심이 투철하고 불교활동을 열심히 하는 대학생, 고등학생 불자들에게 수여될 예정이다.

한정희 여사는 개신교 신자였으나, 김장군과 혼인 후 개종해 불자가 됐다. 대불련 관계자는 “한 여사는 학생시절 받았던



고마움을 회향하기 위해 학생 불자를 위한 장학지원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장학기금 기증식에 앞선 정기법회에서는 익산 사자암 주지 향봉 스님이 ‘중도 사상의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방문했다. 또, 기증식 후에는 대불련 학생들에게 장학금 2700만원이 전달됐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단군신화의 마늘은 본래 달래였다”

주영하 교수, 대한불교진흥원 화요강좌서 강연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 이탈리아의 치즈처럼 김치의 종류도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김치의 역사를 알아야만 합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철)이 매달 한차례 진행하는 화요열린강좌가 11월 22일 마포 BBS다보실당에서 열렸다. 이번 강좌는 ‘자연이 우리 몸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열린 마지막 강연으로,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사진)가 ‘음식으로 보는 인문학’에 대해 강연했다.

주영하 교수는 강연에서 “오늘날 김치를 떠올리면 가장 대표적으로 ‘배추김치’를 생각한다. 사실 배추의 종류는 다양하고, 김치의 종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근대에 접어들면서 김치가 표준화 됐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서양의 철학이 유입되고, 근대화 산업에 접어들면서 음식문화는 표준화·대량화·위생화·화학화 되기 시작했다”며 “특히 한식세계화가 시작되면서



김치는 점차 표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교수는 “김치가 한가지로 표준화되면 나머지 종류의 김치들은 사라지게 된다”며 표준화 현상의 폐해를 지적했다. 이어 주영하 교수는 “사라진 음식들은 인문학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영하 교수는 “식품은 개념적으로 분류를 해놓지 않으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며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마늘을 예로 들었다. 주 교수에 따르면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마늘은 본래 마늘 산자로 달래를 뜻한다.

주 교수는 “당시 곰과 호랑이가 먹었던 것이 지금의 마늘이었다면 우리의 식재료 문화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정 기자

제16회 명원차문화대상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이 제16회 국제 명원차문화대상 시상식 및 차 문화제를 11월 25일 하얏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

이번 명원차문화대상 수상자는 공로상에 김경오 극동지역여성환경연맹 총재, 학술상에 강법선 월간 <다도>대표, 교육상에 이향자 명원문화재단 대구 4지부장이 선정돼 상금 및 상패를 수여했다.

국제명원차문화대상은 한국 차 선구자인故 명원 김미희 선생이 세운 차 문화복원과 위업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국내외 차 문화·산업·교육 기여한 공로자들을 대상으로 수여된다.

명원문화재단 측은 김경오 총재는 한국 최초 여성 비행사로 한국의 항공발전과 저변 확대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김미희 선생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한민국 공군 발전 및 여성항공협회, 국내외 항공계 발전에 큰 업적을 이뤘었다고 밝혔다.

강법선 대표는 월간 <다도> 및 <난과생활> 발행인으로, 대장경 속의 차 문화, 다마고도(茶馬古道)와 티베트의 차 문화에 대한 고찰 등 다양한 논문을 통해 차 문화 학술발전에 큰 기여해 온 점을 높이 샀으며, 이향자 지부장은 명원지부를 개설해 다도인구의 저변 확대와 명원 김미희 선



이향자 김경오 강법선

생의 차정신을 보급하는데 앞장서 온 공을 높이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은 인사발에서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핵심은 다양성과 창의성에 있다”며 “문화는 각 민족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500만 차 인구를 가진 자랑스러운 문화민족으로서 차 문화를 전세계에 알리고, 차 문화의 문화적 위치를 가일층 선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축사를 통해 “故 명원 김미희 선생은 일찍이 ‘다도는 선승들이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다. 불가에서는 선이 끝나고 수마를 쫓기 위해 애음도하고, 선다일체의 음다가 속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앞으로 우리의 차문화가 정신 문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시기에 한국다도 차 문화 명원문화재단이 주축이 돼 이끌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한마음선원, 5000여 신도 동시 수계법회

전국서 이른 아침부터 참석 5계 이행 가슴 깊이 서원해

“부처님 뜻에 따라 바르게 살 것을 서원합니다.”

한마음선원(주지 해원)이 2011년 수계법회를 안양 본원에서 11월 20일 봉행했다. 수계법회에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영유아부터 가족들의 부축이 필요한 고령의 보살 등 5000여 신도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선원을 방문해 수계법회 시간을 기다렸다.

수계자들은 삼보를 청하는 청송을 통해 불보살님들의 자비광명으로 수계를 증명할 것을 청하고 대행 스님을 증사로, 주지 해원 스님을 계사로 모셨다. 신도들은 또 삼귀의를 행하고 오계를 받들어 본래 자성불을 발현할 것을 다짐했다.

의례 후에는 대행 스님의 법문을 동영상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대행 스님은 법문을 통해 “오계를 받고 이를 실천하면서 가피를 받는 것은 영혼을 건져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지극히 정성을 다해야 하고, 한번 받았다고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수계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계율을 잘 지키며 사는 사람은 안 받아도 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이 길잡이, 보디가드를 해주면서 방향을 잡아준다. 의식만 있는 사람은 마음의 길



수계를 받는 한마음선원 신도들의 모습

잡이, 주장자가 없는 것이다. 한마음으로 동글게, 돌로 보지 말고 살아야 한다. 옛날 얘기도, 미래 얘기도 듣지 말고 현재에 우리가 땅을 밟고 살얼음판 위에서 산다는 것을 느끼라. 그러면 5계 받은 것이 대성공으로 이뤄질 것이다”고 밝혔다.

법문 후에는 주지 해원 스님이 5계를 낭송하며 지킬 것을 물었고, 신도들은 지킴겠다고 대답하며 마음속으로 5계를 되새겼다. 이후 신도들은 순서대로 질서 있게 차례차례 스님들로부터 수계를 받았다.

하동균 불자는 “올해로 4번째 수계를 받았다. 수계를 받으면서 5계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게 된다. 받을 때마다 마음이 편해지고 감회도 새로운 것 같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제12회 김흥국장학재단 장학금전달식

김흥국장학재단(회장 김흥국)이 12월 3일 서울 이태원동 마오에서 제12회 김흥국장학재단 장학금전달식을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이상은 학생(변동초교·8)외 9명에게 각 5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또 원로불자기수인 남강수 씨에게는 감사패와 100만원 상당이 상품이 전달된다.

김흥국장학재단은 2000년 2월 26일 설립돼, 매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김흥국 씨는 “이미 100명의 학생들에게 작지만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많은 불자들의 관심과 후원 덕에 12번째 장학금 전달식을 갖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02)745-0306 이은정 기자

봉

사단법인 한국불교환인종 창종 대법회

- 초대 종정 석정안 대종사 대관식 및 초대 총무원장 지우 종사 취임식 -

행

귀의삼보하옵고

만추지절에 불자님의 가내에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깃들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번 (사)한국불교 환인종 창종 대법회 및 초대 종정 석정안 대종사 대관식과 함께 초대 총무원장 지우 종사 취임식을 봉행 하오니 공사간 다망하시더라도 부디 동참하시어 법석을 빛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불자님의 가내에 항상 건승과 행운이 깃들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불기 2555(2011)년 11월

사단법인 한국불교 환인종 창종 대법회 봉행위원회
위원장 지훈 원로의장
부위원장 화륜 종회의장 외 종도 일동

(사)한국불교환인종 총무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 1071번지 무량사 전화 : (053) 255-5570

- 다 음 -

- ◎ 제 목 : (사)대한불교 환인종 창종 대법회 및 초대 종정 석정안 대종사 대관식(즉위식) 초대 총무원장 지우 종사 취임식
- ◎ 일 시 : 불기 2555(2011)년 12월 11일 일요일 오후 1시
- ◎ 장 소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48-144번지
- ◎ 문화회관 전화 : (053) 663-3081
- 후 원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불교TV 일봉신문사, 현대불교